농협은행 전북, 1사1교 금융교육 은행연합회장상 수상

NH농협은행 전북본부 현장지원단 최여진 주임은 지난 26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1사 1교 금융교육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은행연합회장상을 수상했다. 최여진 주임은 전북특별자치도 초.중.고교 및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수준 높은 금융교육을 진행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1사1교 금융교육'은 청소년들이 올바른 금융교육을 통해 건전한 금융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이 초.중.고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참여형 교구와 은행원 직업체험 등을 통해 1사1교 금융교육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 전북본부 4층 청소년금융교육센터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내 유치원생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제 은행 창구에서 쓰이는 지폐계수기, 통장 단말기 등 금융기기 사용법을 익히고,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금융 게임을 활용하여 금융교육을 실시하며 찾아가는 금융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지난한해동안 전북특별자치도 초.중.고등학교 및 금융소외계층을 5,359명을 대상으로 총 153회차의 '찾아가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전북본부 김성훈 본부장은 "미래세대인 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키워갈수 있도록 앞으로 청소년 대상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도내 많은 학생들의 금융 마인드를 향상시키며 진로 탐색 기회를 높넓히는데 최선을 다하며, 특히 자립준비청년, 여성가장 한부모가정, 디지털 사각지대인 시니어세대 등 금융취약계층과 소외지역 학교들의 금융교육 활동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여성·가족정책연구 성과 환류·실행력 제고 방안'

전북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소, 2024년 여성 · 가족정책 연구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전정희) 여성정책연구소(이하 여성정책연구소)는 27일 전북여성가족재단 별관에서 '2024년 연구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황철호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의 축사에 이어 1부의 연구 성과 발표와 2부의 토론 순으로 이루어졌다.

유은경 여성정책연구소장의 '2024년 연구소 주요 성과 및 2025년 사업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이선영 연구위원의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실태 및 정책 개선방안', 백미록 연구위원의 '전북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 조막래 연구위원의 '전북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년(Young Carer) 지원체계 구축 방안', 김재민 연구위원의 '전북특별자치도 여성 1인기업 정책수요와 지원방안' 발표가 이어졌다.

이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정책연구소의 여성·가족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전북도 차원에서의 정책 대응 방안 등을 다뤘다.

이어진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정책 연구 성과 환류 및 실행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는 이혜숙 한일장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 정인경 전남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장, 김동연 전북연구원 인구·청년지원 연구센터장, 오은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의원, 유은경 여성정책연구소장 등이 여성정책연구소의 연구성과 환류 및 실행력 제고를 위한 토론을 가졌다.

전정희 원장은 "여성정책연구소는 재단 통합 이후 지난 1년동안 정책연구의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연구 성과를 낸 만큼 올해는 전북의 변화를 함께하는 여성·가족정책 방향과 정체성 확립에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진안군산림조합, 2024년 경영성과 '최우수' 선정

진안군산림조합(조합장 송윤섭)은 26일 산림조합중앙회 정기총회에서 '2024년 경영성과 최우수조합'으로 선정되어 표창장을 수여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서울 송파구 청사에서 '2025년 정기표창 시상식'을 실시하였으며 시상식에서는 조합원 가입, 사유림경영지도, 산림사업실적, 재무조건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조합을 대상으로 경영종합평가 시상을 진행했다.

송윤섭 조합장은 "2024년 경영성과 최우수조합으로 선정된 데에는 조합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 덕분이었다."며 "앞으로도 진안군산림조합은 산주와 조합원의 권익 향상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기자

부안군산림조합, 상호금융분야 '우수상' 수상

부안군 산림조합(조합장오세준)은 지난 26일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상호금융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부안군산림조합은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예·대출 확대, 금융 컨설팅 강화, 디지털 금융 서비스 도입 등을 추진해왔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민금융 지원과 조합원 맞춤형 금융 상품 개발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

오세준 조합장은 "이번 수상은 조합원과 고객들의 신뢰덕분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 무성서원, 김적우 신임 원장 취임식 개최

정읍 무성서원이 김적우 신임 원장의 취임식을 개최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지난 26일 칠보 행복이음센터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염영선 도의원, 최재기·이도형 시의원, 내장사 대우 스님, 지역유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적우 원장은 정읍시 애향운동본부 이사장을 역임하고 전북서남상공회의소 회장,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인물이다.

칠보면에 위치한 무성서원은 1616년 창건돼 최치원, 신잠, 정극인 등 7인의 선현을 배향하고 있으며 1871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훼철되지 않은 전국 47개 서원 중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서원이다. 또한, 2019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며 역사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취임식에서 김적우 원장은 "무성서원의 활성화를 통해 서원의 가치를 더욱 높이겠다"며 "성현들의 삶과 가르침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확산하는 데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 도통동, 찾아가는 경로당 소통간담회 마무리

남원시 도통동 관계자는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찾아가는 경로당 소통간담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전했다.

이번 소통간담회에서는 주민들에게 시정의 주요사항을 전달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행사로, 도통동 관내 24개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방문했다.

시정 사항으로는 제95회 춘향제 등을 안내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현장점검하는 등 생활민원을 수리하는 등 주민들과 공감하고 함께 논의하는 소통의 장을 펼쳤다.

특히, △경로당 환경개선 △공공 시설물 정비 △주차장 등 공공시설 신설 △시정 사업 연계 등 30여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였으며, 접수된 사항은 소관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해결할 계획이며, 건의사항 추진계획 및 해결 상황은 별도로 주민들께 안내할 예정이다.

소선자 동장은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으로 행복한 도통동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95회 남원 춘향제 대학생 SNS 홍보단 발대식

남원시는 지난 26일, 올해 신설한 대학생 SNS 홍보단으로 기자팀 11팀, 영상 콘텐츠팀 15팀 등 총 26팀에 대해 '95회 춘향제, 대학생 SNS 홍보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홍보단은 지난 2월 9일부터 약 2주간 전국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휴학생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해 최종 선발됐으며, 3명의 외국인 대학생을 포함해 전국 24개 대학생 34명 총 26개 팀이 제1기 대학생 홍보단으로 임명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재연 남원시 문화관광교육국장을 비롯해 강탁원 남원시 관광과 관광축제팀장이 참석해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고, 격려사를 전달하는 등 제1기 대학생 홍보단의 성공적인 출발을 응원했다.

이어 발대식에서는 콘텐츠 에디터 기자증 수여식과 함께 홍보단 활동 지침 교육, 콘텐츠 기획 관련 초청 강연이 진행, 홍보단원들은 앞으로의 활동 방향과 주의 사항 등을 숙지하고 올해 5월까지 95회 춘향제는 물론 남원시의 주요 정책과 행사, 숨은 명소 등을 직접 취재해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 남원시의 매력을 알리는 역할을 맡게 된다.

김재연 남원시 문화관광교육국장은 "SNS 홍보단이 생생한 현장 소식과 참신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소방대원 12명에 하트세이버 수여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27일, 2024년 하반기에 소중한 생명 3명을 구한 소방대원 12명에게 하트 세이버 인증서 및 배지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하트 세이버 배지는 생사의 갈림길에 선 응급환자를 심폐소생술 또는 심장충격기 등을 활용한 전문적인 응급처치로 심정지 환자 생존율을 높이고 후유증 최소화한 대원에게 수여되는 명예로운 상이며, 하트 세이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환자가 병원 도착 전 심전도 리듬을 회복하고, 병원 도착 전·후 의식이 회복되어 72시간 이상 생존해야 한다.

/남원=김기두기자

정성주 김제시장, 백구면 화재피해 주민 위로 방문

정성주 김제시장이 27일 백구면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날 행사를 마친 후 화재 피해로 주택이 전소된 백구면 토끼재 마을 주민을 찾아 위로했다.

앞서 정 시장은 피해 주민의 구호와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관련 부서에 요청, 백구면 사회단체협의회(회장 송석봉)는 직접 모금한 성금 180만원을 피해 주민에게 전달해 겨울 막바지 따뜻함을 전했다.

지난 1월 16일 전기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해 주택이 전소된 백구면 주민 B(80대)씨에게 시는 화재 피해 지원금 500만 원, 긴급 생계급여 월 73만 원, 임시거처 주거급여 지원, 이불, 라면, 쌀 등을 전달하며 다방면으로 지원해 왔다.

정 시장은 "추운 겨울 화재로 생활 터전을 잃어버린 어르신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김제시에서는 어르신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고용부 안전문화실천 추진단, 상반기 정기회의 개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황정호)는 27일 '안전문화실천 추진단(이하 안실단)'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전북 지역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안실단은 전북지역의 산업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기업, 관련 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대표들로 구성하여 지난 2023년 출범한 조직이다.

올해 안실단은 관내 주요 기관의 동참을 격려하며 위험표지판 부착 캠페인, 주요 중대재해 사고사례 전파, 안전메시지 홍보 등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실단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업현장의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만호 기자

전북지방변호사회,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학수)는 지난 26일,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문화 확산을 위해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성훈)를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1600만원(131명 참여)을 전달하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학수 회장을 비롯한 전북지방변호사회 임원진과 김성훈 농협은행 전북본부장 및 임직원들이 함께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회원들이 지정한 도내 각 지자체의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김학수 회장은 "전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전달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법조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 김성훈 본부장은 "전북지방변호사회가 보여준 고향사랑기부제 동참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공무원 신규 임용후보자, 남원시에 고향사랑기부

남원시는 도 인재개발원(남원시 산성길 87)에서 공무원 신규 임용후보자 과정을 밟은 1기 수료자 22명이 지난 27일, 남원시에 고향사랑기부금 총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도 대외협력과 정우영 주무관은 "남원에서 신규자 교육을 받으면서 남원이 아름답고 정다운 도시라는 걸 알게 됐다며, 교육 과정에서 만난 좋은 인연들과 추억도 쌓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기 위해서 이번 기탁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으며, 기부자 명단은 남원시청 대외협력팀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